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강지숙

2016년 6월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민 호

강 지 숙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강지숙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6년 6월



Influence of the Death Attitude  
and General Self-Efficacy on the Safe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Kang, Ji Sook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2016. 06.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v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 정의.....	4
<b>II. 이론적 배경 .....</b>	<b>6</b>
1. 죽음 태도 .....	6
2. 일반적 자기효능감.....	9
3. 안전의식.....	12
<b>III. 연구 방법 .....</b>	<b>17</b>
1. 연구 모형.....	17
2. 연구 대상.....	18
3. 측정 도구.....	18
4. 자료 분석.....	22
<b>IV. 연구 결과 .....</b>	<b>23</b>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 의 차이.....	23
2.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	27
3.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 치는 영향.....	30

V. 논의 .....	39
VI. 결론 및 제언 .....	45
1. 결론 .....	45
2. 제언 .....	47
참고문헌 .....	48
Abstract .....	53
< 부록 1> 죽음 태도 .....	56
< 부록 2> 일반적 자기효능감 .....	58
< 부록 3> 안전의식 .....	59

##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9
<표 III-2> 죽음 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	20
<표 III-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	20
<표 III-4> 안전의식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	22
<표 IV-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24
<표 IV-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	24
<표 IV-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	25
<표 IV-4> 전공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	26
<표 IV-5> 거주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	27
<표 IV-6> 대학생의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관계성 .....	28
<표 IV-7>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29
<표 IV-8>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0
<표 IV-9> 죽음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분야별 안전의식의 관계성 .....	32
<표 IV-10>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33
<표 IV-11>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34
<표 IV-12>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	35
<표 IV-13>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생활안전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6
<표 IV-14>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소방안전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7
<표 IV-15>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재난안전 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38

##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 모형 .....	17
----------------------	----

국문초록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강 지 숙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분야별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측면을 제시하고,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2개 대학의 남·여 대학생 36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은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대학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은 가족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의미하게 낮고,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소방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공계열의 대학생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보다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죽음수용 태도 및 죽음공포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10.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생의 안전의식은 죽음수용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죽음공포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대학생의 죽음 태도의 하위요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안전의식의 분야에 따라 예측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부적 영향),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생활안전의식에 대해 14.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소방안전의식에 대해 10.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재난안전의식에 대해 10.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죽음 태도와 안전의식간의 관계를 살핀 국내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리적 고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획일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보다는 개인들이 갖는 죽음 태도를 반영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안전교육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죽음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안전 불감증, 안전의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안전 분야의 취약성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로 큰 대가를 치루며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희생자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연이은 안전사고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안전한 곳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매년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다시 재발되면서 대한민국은 안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전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검토한 Beck et al.(1994)은 성찰성을 결여한 산업화는 개인과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양상해 낸다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도 이 경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150년에 걸쳐 달성한 근대화를 5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성장제일주의 풍토는 안전을 경시하고 능률과 생산성을 우선시하면서 수많은 위험요소를 잉태하였다. Heinrich(1980)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환경 요인, 물적 요인, 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숫자로 제시하였는데 이른바 “ 2 : 10 : 88 ”이다.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단지 2%에 불과할 뿐이며, 10%는 불완전 물적 요인-안전하지 못한 기계적 신체적 상태-에 기인하고, 88%가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같은 인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이해와 사고방식 그리고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의 고령화 속에서 안전의식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국민들의 안전의식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매우 낮았고,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50.9%, ‘다소 부족하다’ 44.1%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는 2007년

소방방재청의 보고한 결과인 30.3점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나 하나쯤이야’,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지’, ‘설마 무슨 일 있겠어?’하면서 규칙이란 울타리를 슬쩍 넘어가려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 안전에 관한한 문맹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게 됐다.

큰 사고와 작은 사고, 그리고 징후들 간의 상호 인과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 “1 : 29 : 300 법칙”이며 우리는 이것을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부른다. “한 번의 중상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경상이 있었고, 더 이전에는 부상이 발생하지 않은 300번의 가벼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Heinrich는 큰 사고는 우연히 혹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사소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김민주, 2014). 다시 말해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안전사고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안전사고로 부터 일상생활이 결코 자유로울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가림 의식이 주류를 이루고, 안전수칙을 거추장스러운 간섭으로 생각하고, 안전교육에도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안전의식이 완전히 무시되는 현상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연구자는 그 해답을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을 비롯해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삶의 유한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나와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질수록 외면하려 한다. 죽음은 명백하게 현존하는 현상이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로 죽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죽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전사고와 안전의식 그리고 안전행동에 관한 실태 분석,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성 연구, 안전교육이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개개인이 갖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안전의식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내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 변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죽음 대처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김지현, 2008). 이에 연구자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얼마나 위험에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를 지지할 근거로 안전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이 재해 예방에 효율적이라는 박영신 등(1998)의 연구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는 안전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작업자일수록 안전실천의 정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전효능감이 높은 작업자가 소속된 회사는 중대한 재해나 가벼운 재해의 발생 빈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인 재해도 적었다. 여기서 안전효능감이 안전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한 효능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안전영역을 비롯해 죽음영역에서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구성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이 연구에 더 적합한 변인일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대학생들은 책임 있고 자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수동적이거나 다양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사정이 다르다. 정규과정에 없는 안전교육을 스스로 찾아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 조사 결과 안전의식과 실습 교육이 특히 부족한 계층은 연령별로 20대였고, 직업별로는 학생과 전업주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이면서 학생인 경우 안전의식과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분야별 안전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죽음 태도 및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반영할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분야별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 정의

### 1) 죽음 태도

죽음을 공포라는 정서적 측면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념(Ray et al., 1974)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운영(2008)이 번안한 죽음 태도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죽음 태도를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일반적 자기효능감

넓고 다양한 영역의 성취 상황들에서 자신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반적 유능감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Eden, 2001). 이 연구에서는 송윤아(2010)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안전의식

일상생활과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행동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위적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의 안전 역량 행태와 태도, 습관, 지식으로 정의한다(이환성 등, 2014). 이 연구에서는 2007년 개발된 ‘국민안전의식지수 I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PSCI)’으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죽음 태도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죽음의 보편성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죽음은 상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는 죽음을 수용하면서도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거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장미란, 1981). 죽음에 대한 태도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며 죽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지현, 2008).

Ray et al.(1974)은 죽음수용이 죽음공포와 유목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Feifel(1990)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수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1) 죽음공포와 죽음수용

Becker(1973)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정서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자각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나타난다고 했으며(박아청, 2010), Frankl(1963)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Wass(1988)에 따르면 죽음공포는 단일한 구성개념이 아니며 죽음과 관련된 주제들은 복합적이다. 한편 Klug & Sinha(1987)는 죽음수용을 ‘비교적 편안히 인생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죽음수용이 개인의 유한성에 대한 인지적 자각과 그러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혹은 적어도 중립적인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Wong et al.(1994)은 죽음공포 및 죽음 태도와 관련되는 기존의 연구들을 개

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죽음수용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죽음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 도구인 '죽음 태도 척도-개정판(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 DAPR)을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회피,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죽음에 대한 접근적 수용, 죽음에 대한 탈출적 수용의 다섯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은 죽음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삶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큰 두려움 없이 수용한다(Wong et al., 1994). 접근적 수용은 행복한 사후 세계와 관련된 신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죽음 이후의 다른 삶은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믿거나 영원한 삶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죽음에 대해 덜 불안해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ng et al., 1994). 탈출적 수용은 삶이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Vernon(1972)은 삶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통에 압도당할 때에는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죽음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

죽음 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혹은 영향을 미친다. Woodruff-Pak은 청년과 젊은이들이 죽음에 대해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김은희, 2006에서 재인용). 청년들은 전형적으로 죽음을 부정하고 특히 자신의 죽음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청년들이 죽음을 그들 자신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주제를 회피하거나, 우습게 만들거나, 무효화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한다(이재영, 2004). 김지현(2008)은 청년집단의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이 각각 서로 다른 변인들과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독립적인 것일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청년집단의 죽음공포에서 성차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지현·민경환(2005)은 개인의 다양한 성격변인들과 죽음 관련 태도 변인들-종교성, 죽음대처 효능감, 노화에 대한 태도 등-이 죽음 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죽음 태도는 죽음 불안, 죽음 대처 유능감,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임송자·송선희(2012)는 죽음 태도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최영임 등(2007)은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가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가 획일적이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김지현(2008)은 죽음 태도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청년들은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성인에 비해 죽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조적으로 자살의 충동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았다는 학생이 210명중 92명(42%)에 달한다는 이재영(2004)의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옥자(2007)는 대학생의 죽음 관련 태도 연구에서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수용과 그 의미는 부정적이고 죽음에 대한 정서는 불쾌한 반응이며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결정을 한다고 했다. 이렇듯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이는 죽음 태도가 감정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죽음 태도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시기 및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태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의 자세는 사뭇 다르다. Kalish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김인숙·유애광·송선희, 2003에서 재인용). 살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면서 죽음이 다가온다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남은 생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평소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회피하고 살아간다.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때로는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이재영, 2004). 이러한 성향은 또한 자신과 혹은 사회전체의 안전에 대한 가치 추구에 대해서도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추하는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 2. 일반적 자기효능감

### 1) 자기효능감

인간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과 관련된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한 동기화가 필요하다(Bandura, 1997). 사람들은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선지 최적의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Bandura(1997)는 개인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합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최적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행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정도에 있어서 개인차를 반영한다. 그러나 개인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Locke et al, 1990). 이러한 이유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장면에서의 긍정적인 수행을 예측하는 변수로 주목을 받아왔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으로부터 발전한 이론이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단순하게 개인의 내적 성향이나 혹은 외적 자극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자기조절에 의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Bandura, 1988). 개인, 행동,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관계를 형성한다는 삼자상호작용론을 제시한 Bandura(1988)는 특히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인지적 개인 요인으로서의 자기 참조적 사고가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기능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자기 참조적 사고란 개인의 자각과 행동을 중재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개인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고 판단하는가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수행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

며 이는 곧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김아영, 2004).

## 2) 자기효능감의 원천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다음의 네 가지의 원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첫째, 직접적인 성취경험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과거 경험은 자기효능감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이다. 둘째, 대리경험으로 이것은 타인의 성공 혹은 실패를 목격함으로써 자신도 비슷한 과제나 상황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리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 형성은 직접적인 성취경험보다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타인에 의한 언어적 설득으로 타인으로부터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관해서 듣는 것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행위자 자신의 진정한 경험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과제를 수행한 경우보다는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데 덜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각성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주어진 어떤 수행상황에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정서적 각성의 정도 및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수행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각성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와 수행이 곡선형 관계를 이루듯 지나치게 높은 각성수준은 과제수행을 방해하고 각성이 적절한 수준일 때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므로 정서적인 측면을 조절하는 기제는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킬 수 있다(한태영, 2015).

## 3) 자기효능감의 주요과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인지적 자원들과 주어진 상황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시작하고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Wood & Bandura, 1989)으로서 인지적 과정, 동기적 과정, 정서적 과정, 그리고 선택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동기와 정서 행동을 결정한다. 이 네 가지 과정은 서로 중복되며 상호영향을 미치게 된다(Bandura, 1993). 인지적 과정은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개인이 수

행한 특정 행동의 결과로 특정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그 인과 관계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인지과정을 통해 통제소재가 자극에서 개인으로 이동한다. 자기효능감의 동기적 과정은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실패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93). 자기효능감은 위협을 느끼는 상황 혹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나 우울해지는 정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사고의 본질과 과정을 변화시켜 행동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환경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Bandura, 1993).

#### 4)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

Kim과 Park(2000)은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것부터 특수한 것까지 존재하며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Eden(1988)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나 특수적 자기효능감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행 영역이 일반적인가 혹은 구체적인가에 따라 그 구인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모두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이지만 각각 다른 이론적 개념화 과정과 조작적 정의를 통해 구별된다. Bandura(1997)는 두 변수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과제와 상황에 특수화된 인지적 측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성취 상황에서 필수적인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일반화된 특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 집중된 특수한 요구보다는 다양한 상황적 요구 하에서 다양한 활동 영역에 걸친 역동적이고 다양한 신념체계를 나타낸다. Chen et al.(2001)은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변하기 쉽다면 상대적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수적 자기효능감이 상호관련성이 높은 과제들 사이에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상호관련 정도가 낮거나 혹은 거의 없는 과제들 사이에서조차 유지되는 일반화된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자신감이다(Sherer et al, 1982; 오인수, 2002에서 재인용). Eden(1988)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다양한 특수적 자기효능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였다. 과거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국한하여 자기효능감을 연구해왔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분야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권양이, 2011; 김선혜, 1999; 최미이, 2001; 김혜영, 2002; 박혜남, 2013).

### 3. 안전의식

#### 1) 안전의식의 정의

‘안전의식’은 ‘안전’과 ‘의식’의 합성어로 사전에는 표기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의식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해 안전과 의식에 대해 각각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기로 한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표준 국어 대사전, 2016). 이것은 절대적 개념의 안전을 말한다. 그러나 위험이 없는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고, 혹여 완벽한 안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완벽한 것인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지각하고 있으며 그 위험의 정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것일 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소방방재청,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위험의 수용 가능한 수준과 인식은 사회적 혹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설동훈(1998)은 위험의 제거가 곧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과 위험을 불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전에 대한 이론의 유용성을 고려하면 안전을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위험에 대한 수용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 연속적인 개념으로서의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16). 즉, 의식은 깨어있으면서 개인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상태를 의미한다(Merriam-Webster Dictionary: 이환성 등, 2014에서 재인용). 비록 사전적 의미로는 명쾌해보이지만 학술적인 개념으로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너무 흔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이제 개별적인 두 개의 개념을 결합하면 안전의식이란 “개인에게 손상을 끼치는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 대해 자각하고 이해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환성 등(2014)은 이 안전의식이라는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안전의식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안전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을 단위로 측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며 따라서 안전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외부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함’과 ‘개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동기’, ‘외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어떤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함을 비롯한 외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수동적 차원의 안전에 해당할 것이며 개인을 비롯해 사회전체의 안전 제고를 위한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동기-행태를 일관성 있게 포함할 경우 능동적 차원의 안전에 해당할 것이다. 개인의 행태가 주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다는 것을 감안하면 능동적 의미의 안전은 수동적 의미의 안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환성 등(2014)은 안전의식이란 안전에 대한 가치인식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해 개인 수준, 집단 및 조직 수준, 사회전체의 안전수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행태를 유발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동기로 정의하고 있다.

## 2) 안전의식의 유형

이환성 등(2014)에 따르면 안전의식은 개인적-사회적 차원과 수동적-능동적 차원의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우선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축은 의식의 주체

로서의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해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주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요소, 그리고 사회전체 차원의 위험 요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범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수동적-능동적 차원의 축은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 발굴 및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다.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살펴본 안전의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수동적 안전의식은 개개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거나 혹은 매체를 통한 정보 접촉을 통해서 형성된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능동적 안전의식은 개개인의 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의지와 행태이다. 즉, 직·간접적인 경험이나 매체를 통해 인지된 현재의 위험요인과 아직 인지하지 못한 미래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주기적인 가스안전점검이나 주기적인 차량점검, 주기적인 주변 환경점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수동적 안전의식은 개개인이 속한 공동체 및 사회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상태를 말한다. 개인적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사회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지만 역량의 한계 혹은 의지 등의 문제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험 발생 시 수동적인 대처만이 가능하다. 넷째, 사회적 차원의 능동적 안전의식은 사회전체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자신을 비롯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및 사회의 안녕을 목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혹은 새로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와 행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이 상호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의식은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능동적 안전의식의 형성과 대응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에 있어서도 개인적 차원의 안전 제고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전체 차원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안전의식 이전에 개인적 차원의 안전의식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인구통계학적 요인

임현주(200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분석에서 성차가 나타남을 검증하였으며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미영(2000), 이형엽·권봉안·이영애(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심은순(2003), 임현주(2005)는 초등학생들의 학업수준에 따른 안전의식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학업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2) 개인적 성격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험과 사고에 더 자주 노출되는 것 같다. 이것은 개인적 성격의 차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상이한 의식과 행동의 결과로 보인다. Hansen(1988)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외향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 부적응적이고 신경질적이며 충동적이고 안전의 책임을 외부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 (3) 학습효과

안전사고 경험은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임현주(2005)의 연구에서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유현정·이재은(2010)은 한국·미국·중국·일본 소비자들의 안전의식의 비교연구에서 미국과 일본 소비자들에게 축적된 다양한 안전사고 경험이 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성숙·이기춘(1998)은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고찰한 결과 소비자의 안전 지향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특히, 소비자 전문지를 구독하거나 위해를 경험한 적이 있던 소비자가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 비해 안전의식이 더 높고 안전추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안전교육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창희(2010)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경험유무에 따른 안전의식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안전교육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또한 단수의 교육자에 의한 교육보다 다수의 교육자가 반복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안전의식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힘으로써 안전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 또한 안전의식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명선 등(2012)과 김종복(2007)의 연구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안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안전의식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다. 최충식 등(2013)은 생활, 소방, 시설, 산업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받지 않은 국민들에 비해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밝혔다. 최영희(2009)는 초·중·고등학생들과 일반인,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체험 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안전의식에 대해 소방안전체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재환(1996)은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로 인하여 안전교육 시간을 줄인 후 건설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시간과 질을 높이고 각각의 산업 특성에 맞는 수행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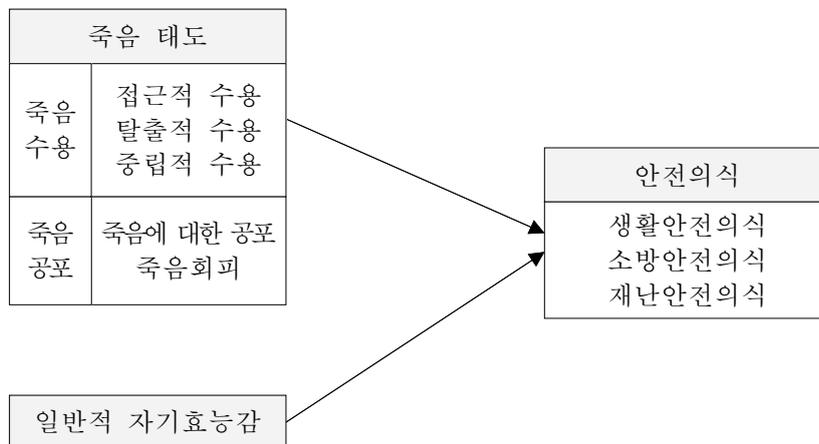
#### 4) 안전의식의 측정

안전의식에 대한 파악은 자기 강화의 속성을 지닌다. 현재의 안전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단초가 되며 나아가 안전에 관해 현재 부족한 측면을 보충하기 위한 개개인의 행동, 태도, 능력,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점검토록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환성 등, 2014).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에서 연구자는 예측변인으로 대학생들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안전의식을 적용하였다. 죽음 태도는 죽음수용 태도와 죽음공포 태도로 구분하였고, 죽음수용 태도는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을 하위변인으로 두었으며 죽음공포 태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회피를 하위변인으로 두었다. 이 때 선행연구를 통해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연령, 전공, 거주환경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예측변인과 준거변인들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연구모형의 분석틀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 2. 연구 대상

### 1)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의 설문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20명의 남·여 대학생이며 조사는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 기간은 2016년 3월 17일 부터 3월 21일까지이며 본조사기간은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다. 설문지는 총 42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51부를 제외하고 총 369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 369명 중 남성이 192명(52.0%), 여성이 177명(48.0%)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 초반 284명(77.0%), 중·후반 85명(23.0%)이었다.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180명(48.8%), 인문사회계열이 189명(51.2%)이었으며 거주환경별로는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123명(33.3%),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164명(44.4%), 기숙사 등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82명(22.2%)이었다. 이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III-1>과 같다.

## 3.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죽음 태도 척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안전 의식 척도’이다.

### 1) 죽음 태도

죽음 태도는 5가지 하위척도로 측정되었다. Wong et al.(1994)이 제작한 다차원적 죽음 태도 척도(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DAP-R)를 이운영(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세의 삶이 현세의 삶보다 나을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N)	유효 퍼센트(%)
성별	남자	192	52.2
	여자	177	48.0
	합계	369	100.0
연령대	20대 초반	284	77.0
	20대 중후반	85	23.0
	합계	369	100.0
전공	이공계열	180	48.8
	인문사회계열	189	51.2
	합계	369	100.0
거주형태	혼자 생활	123	33.3
	가족과 생활	164	44.4
	공동체	82	22.2
	합계	369	100.0

으로 적극적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인 ‘접근적 수용’차원 8개 문항, 죽음을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의 도피처이자 탈출구로 간주하여 불행한 삶에 대한 대안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탈출적 수용’차원 3개 문항, 죽음을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비교적 담담하게 두려움 없이 받아들임을 나타내는 ‘중립적 수용’차원 3개 문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측정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차원 5개 문항, 죽음에 대한 생각을 거부하거나 회피를 나타내는 ‘죽음회피’ 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운영(2008)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접근적 수용 .903, 탈출적 수용 .819, 중립적 수용 .810, 죽음에 대한 공포 .850, 죽음 회피 .817이었고 이 연구에서의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접근적 수용 .929, 탈출적 수용 .911, 중립적 수용 .829, 죽음에 대한 공포 .899, 죽음 회피 .85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를 도표를 제시하면 <표 III-2>와 같다.

## 2) 일반적 자기효능감

다양한 상황과 개인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사전 경험

<표 III-2> 죽음 태도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구 분	변 인	신뢰도(Crobach's <i>a</i> )
죽음 태도	죽음수용	.855
	접근적 수용	.929
	탈출적 수용	.911
	중립적 수용	.829
	죽음공포	.904
	죽음에 대한 공포	.899
	죽음회피	.855
	죽음 태도	.875

을 통해 형성되는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사전 경험이 없는 과제에 대한 수행 정도나 전반적 수행형태를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Sherer(1983)의 연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넓고 다양한 성취상황에 걸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사전 경험이 많지 않은 안전사고의 경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변인들의 영향력을 더 잘 설명할 것으로 예측하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송윤아(2010)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학생 집단에 실시된 척도의 Cronbach's *a*는 .87이고 이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는 .927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III-3>과 같다.

### 3) 안전의식

개인의 안전의식정도는 객관적 설문항목 개발을 통해 2007년 소방 방재청과

<표 III-3>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구 분	변 인	신뢰도(Crobach's <i>a</i> )
일반적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927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국민안전의식지수 I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PSCI)로 측정되었다. 국민안전의식지수 I 은 개인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행태와 안전지식을 총괄적으로 측정하는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항목 간 가중치를 두어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개인의 안전의식을 측정한다. 생활안전은 일상사고와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로 구성된 17개 문항이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의 점수산정은 5점 척도 중 ‘매우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응답은 불안전 행태로 설정하여 0점을 부여하고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는 3점을 부여하였다. 소방안전은 화재, 가스, 전기, 폭발 사고 등에 대비한 평소 지니고 있는 안전 습관들에 대한 13개 문항이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문항의 점수산정은 5점 척도 중 ‘매우 그렇지 않다’ 와 ‘그렇지 않다’ 응답은 불안전으로 하여 0점을 부여하고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매우 그렇다’ 응답에는 3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연습경험 유무를 묻는 13번 문항의 경우 ‘없다’는 0점을, ‘있다’는 3점을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은 자연재난을 비롯해 응급처치 등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식 등에 대한 15개 문항이며 리커트(Likert) 3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 산정은 3점 척도 중 ‘아니다’는 0점을, ‘그저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응급구조에 대한 교육 경험과 재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경험을 묻는 14, 15번 문항에 대해서는 ‘없다’는 0점을, ‘있다’는 2점을 부여하였다. 이들 각 요인별 점수는 개인점수 합계 생활 51점, 소방 39점, 재난 30점을 각각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요인별 점수에 따라 3등급으로 표시되며 43.41 미만이면 ‘미흡’, 43.41~69.05이면 ‘보통’, 69.05보다 높으면 ‘우수’로 구분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는 생활안전의식 .86, 소방안전의식 .88, 재난 안전의식 .89이었고 이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각각 생활안전의식 .784, 소방안전의식 .790, 재난 안전의식 .79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으며 이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안전의식 척도의 신뢰도 검사 결과

구 분	변 인	신뢰도(Crobach's <i>a</i> )
안전의식	생활안전의식	.784
	소방안전의식	.790
	재난안전의식	.799
	안전의식	.886

#### 4. 자료 분석

설문지의 통계적인 자료처리는 표본에 대한 자료수집 후 유효자료를 사전 선별하여 자료를 코딩하고 통계기법은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의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모든 변인들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뒤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3>를 확인하기 위해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분야별 안전의식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분야별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모든 변인들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뒤 죽음 태도 하위변인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분야별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VI. 연구 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의 평균

대학생의 죽음수용 태도는 2.62이며 접근적 수용 2.22, 탈출적 수용 2.00, 중립적 수용 3.65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중립적 수용 태도는 다른 수용 태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죽음공포 태도는 2.43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 2.54, 죽음회피 2.3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4.16으로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안전의식의 경우 대학생의 전체 안전의식은 39.42로 안전의식등급기준의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생활안전의식은 다른 분야의 안전의식에 비해 다소 높은 45.32로 안전의식등급기준의 '보통'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의식은 31.60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으며 안전의식등급기준 '미흡'한 수준이었다. 재난안전의식은 41.33으로 안전의식등급기준 '미흡'한 수준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별, 연령, 전공, 거주형태를 고려하였다.

##### (1)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

성별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에서 보면 집단 간 주요 변인들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남자(N=192)		여자(N=177)		전체(N=369)	
	M	SD	M	SD	M	SD
죽음수용	2.60	.73	2.64	.67	2.62	.74
접근적 수용	2.21	.97	2.24	.96	2.22	.96
탈출적 수용	2.03	1.05	1.97	.96	2.00	1.01
중립적 수용	3.56	1.05	3.74	.91	3.65	.99
죽음공포	2.44	.90	2.24	.87	2.43	.88
죽음에 대한 공포	2.51	1.04	2.57	1.03	2.54	1.04
죽음회피	2.35	.94	2.24	.92	2.30	.93
일반적 자기효능감	4.20	.89	4.11	.739	4.16	.82
안전의식	39.11	13.35	39.76	12.76	39.42	13.05
생활안전의식	44.73	15.23	45.95	15.36	45.32	15.29
소방안전의식	31.29	15.19	31.94	15.59	31.60	15.36
재난안전의식	41.30	18.81	41.37	16.89	41.33	17.89

<표 IV-2>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남자(N=192)		여자(N=177)		t	p
	M	SD	M	SD		
죽음수용	2.60	.73	2.64	.67	-.663	.508
접근적 수용	2.21	.97	2.24	.96	-.238	.812
탈출적 수용	2.03	1.05	1.97	.96	.517	.605
중립적 수용	3.56	1.05	3.74	.91	-1.713	.087
죽음공포	2.44	.90	2.24	.87	.195	.845
죽음에 대한 공포	2.51	1.04	2.57	1.03	-.506	.613
죽음회피	2.35	.94	2.24	.92	1.127	.260
일반적 자기효능감	4.20	.89	4.11	.739	.895	.371
안전의식	39.11	13.35	39.76	12.76	-.477	.634
생활안전의식	44.73	15.23	45.95	15.36	-.767	.444
소방안전의식	31.29	15.19	31.94	15.59	-.407	.684
재난안전의식	41.30	18.81	41.37	16.89	-.039	.969

\*  $p < .05$ , \*\*  $p < .01$ , \*\*\*  $p < .001$

(2)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

연령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20대 초반(20세~24세)과 20대 중·후반(25세~29세)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에서 보면 죽음 태도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의미한 연령차를 나타냈다. 즉, 20대 초반의 대학생( $M=2.60$ )이 20대 중·후반의 대학생( $M=2.33$ )에 비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 $t(367)=2.124, p<.05$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 및 분야별 안전의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3)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

전공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이·공 계열과 인문사회계열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에서 보면 소방안전의식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전공차가 나타났다. 즉, 이·공계열의 대학생( $M=33.67$ )이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 $M=29.63$ )에 비해서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 $t(367)=2.534, p<.05$ ].

<표 IV-3>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초반(N=284)		중·후반(N=85)		<i>t</i>	<i>p</i>
	<i>M</i>	<i>SD</i>	<i>M</i>	<i>SD</i>		
죽음수용	2.66	.69	2.50	.73	1.880	.061
접근적 수용	2.28	.97	2.05	.93	1.933	.054
탈출적 수용	2.02	.99	1.95	1.05	.573	.567
중립적 수용	3.69	.95	3.50	1.11	1.402	.163
죽음공포	2.47	.88	2.30	.90	1.531	.127
죽음에 대한 공포	2.60	1.04	2.33	1.00	2.124*	.034
죽음회피	2.31	.91	2.27	.98	.329	.742
일반적 자기효능감	4.14	.80	4.23	.89	-.872	.384
안전의식	39.22	12.70	40.10	14.24	-.545	.586
생활안전의식	45.14	14.96	45.91	16.42	-.406	.685
소방안전의식	31.54	15.36	31.79	15.47	-.131	.896
재난안전의식	40.96	17.01	42.58	20.63	-.662	.509

\*  $p < .05$ , \*\*  $p < .01$ , \*\*\*  $p < .001$

<표 IV-4> 전공에 따른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이·공계(N=180)		인문사회계(N=189)		t	p
	M	SD	M	SD		
죽음수용	2.58	.74	2.67	.66	-1.237	.217
접근적 수용	2.13	.98	2.32	.94	-1.899	.058
탈출적 수용	2.45	1.04	2.61	1.03	.137	.891
중립적 수용	3.60	1.06	3.69	.92	-.917	.360
죽음공포	2.39	.92	2.47	.85	-.844	.399
죽음에 대한 공포	2.45	1.04	2.62	1.03	-1.530	.127
죽음회피	2.31	.96	2.28	.90	.318	.751
일반적 자기효능감	4.17	.84	4.15	.81	.154	.878
안전의식	40.75	14.04	38.15	11.94	1.917	.056
생활안전의식	45.59	15.60	45.06	15.01	.334	.739
소방안전의식	33.67	16.82	29.63	13.60	2.534*	.012
재난안전의식	42.98	19.20	39.77	16.45	1.721	.086

\*  $p < .05$ , \*\*  $p < .01$ , \*\*\*  $p < .001$

(4) 거주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거주 형태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혼자 생활 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 한다’, ‘기숙사 등 공동체 생활을 한다’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에 대한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에서 보면 죽음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 소방안전의식에서 유의미한 거주형태차가 나타났다. 죽음공포의 경우 거주형태에 따른 죽음공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 $M=2.56$ ) 혹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 $M=2.50$ )이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 $M=2.26$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F(2, 366)=3.723, p<.05$  ]. 죽음에 대한 공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 $M=2.72$ )이 혼자 생활을 하는 대학생( $M=2.34$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F(2, 366)=3.748, p<.05$  ].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혼자 생활 하는 대학생이( $M=4.34$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 $M=4.02$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  $F(2,366)=4.886, p<.05$  ]. 소방안전의식은 혼자 생활을 하는 대학생 ( $M=34.40$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 $M=28.17$ )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표 IV-5> 거주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검증 결과

	혼자(a) (N=123)		가족(b) (N=164)		공동체(c) (N=82)		F	p	사후 검증 Scheffe
	M	SD	M	SD	M	SD			
죽음수용	2.61	.71	2.56	.62	2.76	.81	1.904	.152	
접근적 수용	2.27	1.07	2.12	.80	2.38	1.06	2.336	.099	
탈출적 수용	1.97	1.03	1.96	.94	2.12	1.10	.727	.484	
중립적 수용	3.60	1.06	3.61	.94	3.79	1.00	1.048	.352	
죽음공포	2.26	.87	2.50	.88	2.56	.88	3.723*	.025	a < b, c
죽음에 대한 공포	2.34	.95	2.60	1.06	2.72	1.07	3.748*	.024	a < c
죽음회피	2.15	.96	2.37	.91	2.36	.89	2.257	.106	
일반적 자기효능감	4.34	.96	4.02	.74	4.16	.68	4.886**	.008	a > b
안전의식	40.87	13.70	39.31	13.56	37.46	10.71	1.696	.185	
생활안전의식	46.21	15.88	45.10	15.76	44.41	13.41	.369	.692	
소방안전의식	34.40	15.93	31.22	15.74	28.17	12.96	4.197*	.016	a > c
재난안전의식	42.00	19.65	41.60	17.71	39.79	15.44	.407	.666	

\*  $p < .05$ , \*\*  $p < .01$ , \*\*\*  $p < .001$

났다 [  $F(2, 366)=4.197, p < .05$  ] .

## 2.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변인들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뒤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 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죽음 태도 하위 요인 중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 ‘중립적 수용’을 죽음수용 태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회피’를 죽음공포 태도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관계성

먼저 대학생의 죽음수용 태도와 죽음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서 보면 대학생의 죽음수용 태도는 죽음공포 태도 및 안전의식과 약한 정적 관계성이 있었다. 즉, 죽음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죽음공포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r=.138, p<.01$ ) 죽음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안전의식도 유의미하게 높았다( $r=.164, p<.01$ ). 죽음공포 태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약한 부적 관계성을 보였고, 안전의식과는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죽음공포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낮았고( $r=-.110, p<.05$ ), 공포 경향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r=.187, p<.01$ ). 대학생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과 약한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r=.210, p<.001$ ).

2)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와 같다. <표 IV-7>에서 보면 대학생의 안전의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죽음 태도 변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모델4로 이 모델의 설명력은 약 12.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 대학생의 안전의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변인은 전공이었는데( $\beta=-.115, t=-.2068, p<.05$ ),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이 이·공 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죽음 태도 변인은 수용태도와 공포태도 모두 안전의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변인이었

<표 IV-6>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안전의식의 관계성

	죽음수용	죽음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	안전의식
죽음수용	1.00			
죽음공포	.138**	1.00		
일반적 자기효능감	.038	-.110*	1.00	
안전의식	.164**	.187**	.210**	1.00

\*  $p < .05$ , \*\*  $p < .01$ , \*\*\*  $p < .001$

는데 죽음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공포 경향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수용:  $\beta=.111$ ,  $t=2.231$ ,  $p<.05$ ), (공포:  $\beta=.220$ ,  $t=4.384$ ,  $p<.001$ ). 마지막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변인 또한 안전의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변인이었는데( $\beta=-.221$ ,  $t=4.429$ ,  $p<.05$ ),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단독으로는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모델1, 2) 죽음수용 태도 변인이 포함되면서 전공( $\beta=-.114$ ,  $t=-1.995$ ,  $p<.05$ )과 거주 형태( $\beta=-.113$ ,  $t=-2.176$ ,  $p<.05$ )가 안전의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모델 3).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죽음 태도 변인이 포함된 모델3은 3.7%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7.6%의 설명력을 갖는 유의미한 모델이었으며( $p<.01$ ), 여기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포함하면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여 약 12.4%의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1$ ). 이것으로서 대학생의 전공 유형,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표 IV-7>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의 안전의식(N=369)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48	.859	.045	.813	.052	.946	.066	1.236
인	연령	-.017	-.283	-.018	-.295	-.010	-.176	.000	-.002
구	전공	-.105	-1.788	-.112	-1.925	-.114	-1.995*	-.115	-2.068*
	거주형태	-.081	-1.533	-.089	-1.695	-.113	-2.176*	-.091	-1.793
	죽음수용			.140	2.719**	.126	2.474*	.111	2.231*
	죽음공포					.197	3.841***	.220	4.384***
	일반적 자기효능감							.221	4.429***
<i>F</i>		$F(4,364)=1.764$		$F(5,363)=2.915^{**}$		$F(6,362)=4.980^{**}$		$F(7,361)=7.290^{***}$	
<i>R</i> <sup>2</sup>		.019		.039		.076		.124	
<i>R</i> <sup>2</sup> change		.019		.020		.037		.048	

\*  $p < .05$ , \*\*  $p < .01$ , \*\*\*  $p < .001$

전공: 이·공 계열은 1, 인문사회계열은 2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 혼자는 1, 가족과는 2, 기타·공동체는 3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3) 대학생의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는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후 대학생의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대학생의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8>와 같다. 분석 결과 죽음수용 태도( $\beta=.128$ ,  $t=2.562$ ,  $p<.05$ )와 죽음공포 태도( $\beta=.194$ ,  $t=3.860$ ,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 $\beta=.227$ ,  $t=4.544$ ,  $p<.001$ )은 대학생의 안전의식의 약 10.5%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으로서 대학생의 안전의식은 죽음수용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공포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의식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죽음수용이 .128, 죽음공포가 .194,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227로 나타나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대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고, 분야별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 일반적 자기효

<표 IV-8> 죽음수용 및 죽음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대학생의 안전의식(N=369)		
	$\beta$	t
죽음수용	.128	2.562*
죽음공포	.194	3.860***
일반적 자기효능감	.227	4.544***
F	F(3,365)=14.269***	
R <sup>2</sup>	.105	
adjusted R <sup>2</sup>	.098	

\*  $p < .05$ , \*\*  $p < .01$ , \*\*\*  $p < .001$

능감의 분야별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하고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예측변인으로, 분야별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두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대학생의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분야별 안전의식의 관계성

대학생의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분야별 안전의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에서 보면 대학생의 접근적 수용은 탈출적 수용과 유의미한 강한 정적 관계성을, 죽음에 대한 공포 및 죽음 회피와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접근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탈출적 수용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고( $r=.477, p<.001$ ), 죽음에 대한 공포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r=.122, p<.05$ ), 죽음회피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233, p<.001$ ). 분야별 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소방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접근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고( $r=.193, p<.001$ ), 재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36, p<.001$ ). 탈출적 수용은 중립적 수용 및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회피와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탈출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중립적 수용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고( $r=.187, p<.001$ ), 죽음에 대한 공포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r=.045, p<.05$ ), 죽음회피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93, p<.001$ ). 분야별 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소방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탈출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37, p<.001$ ). 중립적 수용은 죽음에 대한 공포 및 죽음회피와 유의미한 약한 부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중립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 경향이 유의미하게 낮고( $r=-.114, p<.05$ ), 죽음회피 경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r=-.112, p<.05$ ). 일반적 자기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이 나타나 중립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12, p<.001$ ). 분야별 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생활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탈출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생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37, p<.001$ ). 죽음에 대한 공포의 경우 죽음회피와 유의미한 강한 정적 관계성이 나타나 죽음에 대한 공포 경향이 높을수록 죽음회피

피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594, p<.001$ ). 분야별 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재난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약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죽음에 대한 공포 경향이 높을수록 재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128, p<.05$ ). 죽음회피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약한 부적 관계성을, 생활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의식 그리고 재난안전의식과는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r=-.131, p<.05$ ). 분야별 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분야와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생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r=.129, p<.001$ ),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r=.210, p<.001$ ),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재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287,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생활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약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다. 즉,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생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r=.301,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r=.165, p<.01$ ). 분야별 안전의식은 서로 유의미한 강한 정적 관계성을 나타냈는데, 생활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고( $r=.509, p<.001$ ), 생활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r=.463, p<.001$ ). 또한 소방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재난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r=.457, p<.001$ ).

<표 IV-9>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분야별 안전의식의 관계성

	1.접근 적수용	2.탈출 적수용	3.중립 적수용	4.죽음 에대한 공포	5.죽음 회피	6.일반 적자기 효능감	7.생활 안전 의식	8.소방 안전 의식	9.재난 안전 의식
1	1.00								
2	.477***	1.00							
3	.097	.187***	1.00						
4	.122*	.045*	-.114*	1.00					
5	.233***	.193***	-.112*	.594***	1.00				
6	.013	-.087	.185***	-.075	-.131*	1.00			
7	.114	-.035	.121*	.026	.129*	.301***	1.00		
8	.193***	.137**	.025	.076	.210***	.165**	.509***	1.00	
9	.136**	.092	-.094	.128*	.287***	.061	.463***	.457***	1.00

\*  $p < .05$ , \*\*  $p < .01$ , \*\*\*  $p < .001$

2) 분야별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1) 생활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표 IV-10>에서 보면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모델로, 이 모델의 설명력은 약 15.2%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생활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죽음 태도 변인들은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생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과 탈출적 수용이 생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죽음 태도를 포함하는 모델은 생활안전의식의 약 7%의 변산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15.2%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0>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생활안전의식(N=369)					
		모델1		모델2		모델3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성별	.061	1.081	.056	1.018	.081	1.539
	연령	.053	.869	.047	.799	.059	1.037
	전공	-.003	-.050	-.016	-.280	-.014	-.251
	거주형태	-.039	-.735	-.051	-.976	-.020	-.390
	접근적 수용			.147	2.479*	.121	2.127*
	탈출적수용			-.165	-2.769**	-.121	-2.120*
	중립적수용			.152	2.874**	.090	1.744
	죽음에 대한 공포			-.069	-1.067	-.076	-1.223
	죽음회피			.191	2.896**	.223	3.526***
	일반적 자기효능감					.298	5.877***
	<i>F</i>	<i>F</i> (4,364)=.567		<i>F</i> (9,359)=3.025**		<i>F</i> (10,358)=6.431***	
	<i>R</i> <sup>2</sup>	.006		.070		.152	
	<i>R</i> <sup>2</sup> change	.006		.064		.082	

\*  $p < .05$ , \*\*  $p < .01$ , \*\*\*  $p < .001$

전공: 이·공 계열은 1, 인문사회계열은 2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 혼자는 1, 가족과는 2, 기타·공통체는 3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2) 소방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V-11>와 같다. <표 IV-11>에서 보면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모델로, 이 모델의 설명력은 약 1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공과 거주형태를 포함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소방안전의식 변산성의 약 4%를 설명하고 죽음 태도 변인을 포함시키면 설명력이 5.8%증가하여 약 9.8%의 설명력을 갖는다. 죽음 태도 변인들 중에서는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가 소방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12.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1>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소방안전의식(N=369)					
	모델1		모델2		모델3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39	.702	.050	.936	.066	1.242
인 연령	-.068	-1.144	-.072	-1.252	-.065	-1.147
구 전공	-.148	-2.548*	-.158	-2.805*	-.156	-2.826*
거주형태	-.134	-2.559*	-.155	-3.031*	-.135	-2.680*
접근적 수용			.146	2.529*	.130	2.282*
탈출적수용			.030	.515	.056	.982
중립적수용			.035	.685	-.003	-.056
죽음에 대한 공포			-.041	-.651	-.045	-.728
죽음회피			.215	3.343**	.235	3.699***
일반적 자기효능감					.184	3.617***
<i>F</i>	<i>F</i> (4,364)=.005		<i>F</i> (9,359)=5.440***		<i>F</i> (10,358)=6.369***	
<i>R</i> <sup>2</sup>	.040		.098		.127	
<i>R</i> <sup>2</sup> change	.040		.058		.029	

\*  $p < .05$ , \*\*  $p < .01$ , \*\*\*  $p < .001$

전공: 이·공 계열은 1, 인문사회계열은 2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 혼자는 1, 가족과는 2, 기타·공통체는 3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3) 재난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에서 보면 학생의 재난안전의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델은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하는 모델로, 이 모델의 설명력은 약 12.0%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재난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죽음 태도 변인들은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죽음회피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는데 안전의식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보여진다. 죽음 태도를 포함하는 모델은 재난안전의식의 약 10.8%의 변산성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12.0%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2%의 설명력이 증가된 결과이다.

<표 IV-12>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재난안전의식(N=369)					
		모델1		모델2		모델3	
		$\beta$	t	$\beta$	t	$\beta$	t
인구	성별	.020	.353	.043	.803	.053	.985
	연령	-.024	-.393	-.029	-.507	-.025	-.433
	전공	-.100	-1.699	-.100	-1.773	-.100	-1.766
	거주형태	-.029	-.546	-.048	-.933	-.036	-.697
	접근적 수용			.084	1.445	.074	1.276
	탈출적수용			.014	.248	.031	.531
	중립적수용			-.075	-1.451	-.099	-1.880
	죽음에 대한 공포			-.056	-.886	-.059	-.931
	죽음회피			.295	4.569***	.308	4.768***
	일반적 자기효능감					.114	2.215*
	F	F(4,364)=.908		F(9,359)=4.831***		F(10,358)=4.885***	
	R <sup>2</sup>	.010		.108		.120	
	R <sup>2</sup> change	.010		.098		.012	

\*  $p < .05$ , \*\*  $p < .01$ , \*\*\*  $p < .001$

전공: 이·공 계열은 1, 인문사회계열은 2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거주형태: 혼자는 1, 가족과는 2, 기타·공동체는 3으로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3) 대학생의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은 대학생의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제되어야 할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후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죽음 태도 하위변인을 예측변인으로 가정하고 대학생의 분야별 안전의식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표 IV-13>에서 보면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의 약 14.5%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접근적 수용, 탈출적 수용, 죽음회피는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서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은 접근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beta=.295, t=5.868, p<.001$ ), 탈출적 수용 경향이 낮을수록( $\beta=.295, t=5.868, p<.001$ ),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beta=.295, t=5.868,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beta=.295, t=5.868, p<.001$ )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접근적 수용이 .117, 탈출적 수용이 -.123, 죽음회피가 .224,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229로 나타나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에 대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3>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생활안전의식(N=369)		
	$\beta$	t
접근적 수용	.117	2.086*
탈출적 수용	-.123	-2.150*
중립적 수용	.094	1.843
죽음에 대한 공포	-.082	-1.358
죽음회피	.224	3.568***
일반적 자기효능감	.295	5.868***
F	F(6,362)=10.206***	
R <sup>2</sup>	.145	
adjusted R <sup>2</sup>	.131	

\*  $p < .05$ , \*\*  $p < .01$ , \*\*\*  $p < .001$

(2)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소방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에서 보면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의 약 10.7%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접근적 수용과 죽음회피는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서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은 접근적 수용 경향이 높을수록( $\beta=.118, t=2.048, p<.05$ ),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beta=.235, t=3.671,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beta=.197, t=3.849, p<.001$ )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접근적 수용이 .118,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197, 죽음회피가 .235로 나타나 대학생의 소방안전의식에 대해 죽음회피 경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재난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에서 보면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의 약 10.9%를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죽음회피는 죽음 태도 변인 중 유일하게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서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은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beta=.309, t=4.822, p<.001$ ),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beta=.117, t=2.284, p<.001$ )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력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117, 죽음회피가 .309로 나타나 대학생의 재난안전의식에 대해 죽

<표 IV-14>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소방안전의식(N=369)		
	$\beta$	t
접근적 수용	.118	2.048*
탈출적 수용	.058	.999
중립적 수용	-.015	-.296
죽음에 대한 공포	-.068	-1.092
죽음회피	.235	3.671***
일반적 자기효능감	.197	3.849***
F	F(6, 362)=7.240***	
R <sup>2</sup>	.107	
adjusted R <sup>2</sup>	.092	

\*  $p < .05$ , \*\*  $p < .01$ , \*\*\*  $p < .001$

음회피 경향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IV-15> 죽음 태도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재난안전의식(N=369)		
	$\beta$	<i>t</i>
접근적 수용	.065	1.132
탈출적 수용	.033	.568
중립적 수용	-.101	-1.945
죽음에 대한 공포	-.068	-1.094
죽음회피	.309	4.832***
일반적 자기효능감	.117	2.284*
<i>F</i>	<i>F</i> (6, 362)=7.351***	
<i>R</i> <sup>2</sup>	.109	
<i>adjusted R</i> <sup>2</sup>	.094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연구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분석 결과 주요 변인들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죽음 태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차를 보였던 김지현·민경환(2005), 김지현(2008), Wong et al.(1994), 임송자·송선희(2012)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견해가 이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안전의식의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임현주(2005), 지미영(2000), 이형엽·권봉안·이영애(2002)의 연구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안전교육의 횟수가 줄어들고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박혜남(2013), 김정은(2014)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죽음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났는데 20대 중·후반에 비해 20대 초반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현(2008), 임송자·송선희(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지현(2008)의 연구는 비교대상이 청년집단과 중년집단이었고, 임송자·송선희(2012)의 연구는 대학생과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연구결과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전공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소방안전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소방안전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진학 후 전공에 따라 접하는 안전교육의 차이인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공계열의

경우 실험실 상황에 많이 노출됨으로써 화재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더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주형태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 안전의식에서 유의미한 거주형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죽음 태도에서 죽음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죽음공포의 경우는 하위변인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공포의 경우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회피를 종합하여 본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많고, 다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경우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많았지만 죽음회피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것이 함께 반영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혼자 사는 대학생이 가족과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보다 죽음공포가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은 혼자 사는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이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거주형태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연령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상기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이 가족과 함께 사는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 심리적인 자립도가 혼자 생활하는 경우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의식의 하위변인인 소방안전의식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보다 소방안전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안전에 대한 책임분산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해지는 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는 안전에 대한 책임분산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혹은 ‘갖춰져 있겠지’하는 안일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2>는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먼저, 선행된 변인간의 관계성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죽음수용 태도와 죽음공포 태도는 유의미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현(2008)의 결과를 지지하여 주는 것으로 죽음수용과 죽음공포가 유목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죽음 태도가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정서적 측면과 죽음을 삶의 일부로 간주하는 죽음수용의 인지적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김지현·민경환(2005)의 연구는 죽음공포와 죽음수용 태도 간에 약한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어서 죽음 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죽음수용 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으며 죽음공포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위협을 느낀 상황이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나 우울해지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죽음공포 태도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안전의식의 경우 죽음수용 태도를 비롯해 죽음공포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모두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죽음수용 태도 및 죽음공포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안전의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모든 독립변인이 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에서 대학생의 안전의식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변인은 전공이었으며 이·공계열의 대학생일수록 안전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특이할만한 것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단독으로는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죽음공포 태도가 포함되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초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죽음수용 태도 변인은 대학생의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수용 태도 변인은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해 3.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죽음공포 태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킨 모델은 대학생

의 안전의식에 대한 설명력이 7.6%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포함시킨 모델은 4.8%의 설명력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하여 12.4%의 설명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가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한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죽음수용 태도와 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의 안전의식의 약 10.5%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서 대학생의 안전의식은 죽음수용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공포 태도 경향이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의식에 대한 영향력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3>은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분야별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선행 된 변인간의 관계성 분석 결과 죽음수용 태도들 간에는 약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것이 내세관에 의한 것이었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든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든 간에 죽음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에서 보이는 공통점 때문인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접근적 수용과 중립적 수용은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죽음수용 태도와 죽음공포 태도들 간에 나타난 관계성을 살펴보면 중립적 수용 태도만이 죽음공포 태도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을수록 죽음공포 태도 경향이 감소함을 말한다. 한편,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죽음공포 태도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김지현(2008), 김지현·민경환(2005)의 연구에서 접근적 수용과 탈출적 수용이 죽음공포 태도들과 일부에서 부적 상관성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죽음 태도 하위 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성에서는 중립적 수용은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을, 죽음회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Bandura(1993)는 위협을 느낀 상황이나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죽음회피 태도의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죽음을 삶의 일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추후 두 변인간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분야별 안전의식은 다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관계들은 모두 정적인 관계성을 보였다. 접근적 수용의 경우 소방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의식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탈출적 수용은 소방안전의식과, 중립적 수용은 생활안전의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로서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서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생활안전의식과의 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재난안전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죽음회피는 안전의식에 모든 하위분야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죽음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모든 분야의 안전의식이 높았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분야별 안전의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생활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의식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재난안전의식과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분야별 안전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었으며 분야별 안전의식에 각기 다른 조합으로 안전의식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첫째, 생활안전의식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대학생의 생활안전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포함 여부에 따른 설명력의 차이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이 생활안전의식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죽음 태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 죽음 태도 변인들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생활안전의식에 대해 14.5%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의식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295로 가장 강했고 다음으로 죽음회피 .224, 탈출적 수용 -.123, 접근적 수용 .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출적 수용 태도 경향이 높아질수록 생활안전의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재영(2004)은 자살의 충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대가 청년들이라고 했으며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았다는 학생이 210명중 92명(42%)에 달한다고 했다. 삶이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 죽음을 환영할 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면 안전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소방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죽음 태도 변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변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소방안전의식에 대해 12.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생활안전의식이나 재난안전의식과 달리 소방안전의식에는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인 전공과 거주형태가 단독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제거하고 죽음 태도변인들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소방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설명력이 10.7%로 감소했다. 소방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며, 그 영향력은 죽음회피가 .23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 .197, 접근적 수용 .118 순이었다. 셋째, 재난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의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포함여부에 따른 설명력의 차이로 보아 생활안전의식과 유사하게 간접적인 영향을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재난안전의식에는 죽음 태도 변인, 일반적 자기효능감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재난안전의식에 대해 10.9%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의식에서 주목할 점은 죽음수용 태도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과 죽음회피 태도 경향이 미치는 영향력이 안전의식의 다른 분야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서 분야별 안전의식에 대한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유의미했음이 확인되었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은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및 안전의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전공에 따른 차이는 소방안전의식을 제외하고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소방안전의식은 이·공계열의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는 죽음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 일반적 자기효능감, 소방안전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죽음 태도와 관련해서 가족과 함께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이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에 비해 죽음공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소방안전의식은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의 죽음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대학생의 죽음 태도의 하위변인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분야별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접

근적 수용,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생활안전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탈출적 수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안전의식에는 접근적 수용,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재난안전의식에는 죽음회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수용 태도 및 죽음공포 태도,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안전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분야별 안전의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죽음 태도 하위변인이 다르며 그 영향력 또한 다르다는 것이다. 인지적 측면으로서의 중립적 수용은 안전의식의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감정적 측면으로서의 죽음 회피가 안전의식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의식의 모든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죽음회피 태도가 생활안전의식, 소방안전의식, 재난안전의식 순서로 영향력이 강해지는데 반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영향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안전의식에 대한 죽음 태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의 변화양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기초로 1)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죽음 준비 교육이 안전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2)분야별 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안전교육프로그램보다는 분야별 특성화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때 일반적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반영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감정적 측면의 태도가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죽음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음을 알리는 강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2. 제언

이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표본크기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어 표본의 크기를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의 대상 지역이 섬지역임을 감안할 때 일반화 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는데 죽음준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의식의 변화가 실제 안전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양이(2011).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대학생들의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특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7(1), 91-118.
- 김민주(2014). **하인리히 법칙**. 서울: 미래의 창.
- 김선혜(1999).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숙, 이기춘(1998).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3), 1-14.
- 김아영(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 연구**, 16(1), 1-38.
- 김영해(2001). 안전의식과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 중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인숙, 유애광, 최영아(2003).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 **김천과학대학논문집**, 29, 5-9.
- 김은희(2006).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김정은(2014).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연구**, 9(1), 79-102.
- 김중복(2007).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대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 연구. **대한안전경영학회지**, 9(3), 41-47.
- 김지현(2008). 죽음에 대한 공포와 수용 및 죽음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지현, 민경환(2005). 청년집단의 죽음공포와 죽음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김혜영(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본위적인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영신, 박동현, 김의철(1998).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안전교육의 방향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4(1), 277-307.
- 박아청(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경기도: 교육과학사.
- 박혜남(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상공간에서의 자기 효능감과 일반적 자기 효

- 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설동훈(1998). 한국인의 위험인식. **한국사회과학**, 20(1), 22-61.
- 소방방재청(2007).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 지수 개발. 소방방재청연구용역보고서.
- 송윤아(201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심은순(2003).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과 안전사고 발생 실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오인수(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 관련 이슈와 인적 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 유현정, 이재은(2010). 한·중·미·일 4개국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국가위기관리학보**, 2(2), 33-51.
- 이명선, 최혜정, 김미희, 박예진(2012).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충남지역 일부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3(2), 93-105.
- 이옥자(2007). 일부 대학생의 죽음관련태도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6(4), 389-397.
- 이운영(2008). Wong의 죽음태도 척도의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재영(2004). 청소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종교교육. **종교교육연구**, 19, 39-56.
- 이창희(2010). 초·중·고등학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이형엽, 권봉안, 이영애(2002). 학교안전사고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충동성과 내·외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안전교육학회지**, 5(1), 21-34.
- 이환성 등(2014). 국민 안전의식 실태분석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연구총서(안전관련 종합정책연구) 14-29-01.
- 임송자, 송선희(2012).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23-255.
- 임현주(2005).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금

- 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미란(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조재환(1996).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연구: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지미영(2000). 학교 사고의 위험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 최미이(2001). 직장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영희(2009). 소방안전 체험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영임, 장휘숙(2007). 대학생과 노인의 죽음공포와 죽음불안 및 생활만족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4), 105-122.
- 최충식 등(2013). “안전교육의 경험이 안전의식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 25회 국민안전119소방정책컨퍼런스. 2013년 8월 13일. 충청소방학교.
- 한국교통연구원 보도자료. 2014. 10. 13.
- 한태영(2015). *인사평가와 성과관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현대경제연구원(2014).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현안과 과제*, 14(40). 1-13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88). Self-regulation of motivation and action through goal systems. In V. Hamilton, G. H. Bower, & N. H. Frijda (Ed.), *Cognitive perspectives on emotion and motivation*(pp.37-61). Dordrecht,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eck, U., Giddens, A., & Lash, S.(1994). *성찰적 근대화*(임현진, 정일준). 서울: 도서출판 한울(원전은 1994년에 출판).
- Chen, G., Gully, S. M., & Eden, D.(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

- 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Eden, D.(1988). Pygmalion, goal setting, and expectancy: compatible ways to boost produc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4), 639-652.
- Eden, D.(2001). *Means efficacy: External sources of general and specific subjective efficac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ecker, E.(2008). **죽음의 부정**(김재영), 경기: 인간사랑(원전은 1973년에 출판).
- Feifel, H.(1990). Psychology and death. *American Psychologist*, 45, 537-543.
- Frankl, V. E.(1963).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 Hansen, C. P.(198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accident involved employee. *Journal of Psychology and Business*, 2(4), 346-365.
- Heinrich, H. W., Petersen, D., & Ross, N.(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 Kim, A., & Park, I.(2000). Hierarchical structure of self-efficacy in terms of generality levels and its relations to academic performance: general, academic, domain-specific, and subject-specific self-efficac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April 24-28.
- Klug, L., & Sinha, A.(1987). Death acceptance: a two-component formulation and scale.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18(3), 229-235.
- Locke, E. A., & Latham, G. P.(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Ray, J. J., & Najman, J.(1974). Death anxiety and death acceptance: a preliminary approach.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5, 311-315.
- Sherer, M., & Adams, C.(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 Vernon, G. M.(1972). Death control.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3, 131-138
- Wass, H., Bernardo, F. M., & Neimeyer, R. A.(Eds.).(1988). *Dying: Facing the facts*(2nd ed). Washing, DC: Hemisphere.
- Wong, P. T. P., Reker, G. T., & Gesser, T.(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In R. A. Neimeyer(Ed),  
*Death anxiety handbook: Research, instrumentation, and application*  
(pp.121-148).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Wood, R., & Bandura, A.(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3), 407-41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Abstract

## **Influence of the Death Attitude and General Self-Efficacy on the Safe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Kang, Ji Sook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death attitude and general self-efficacy on the safety awareness for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researcher addressed these questions:

First, is there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death attitude, general self-efficacy and safe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relat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death attitudes and general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will influence the safety awareness?

Third, the death attitudes sub-factors and general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will influence the sectoral safety awareness?

To reach the goal of this study, researcher starts with presenting a theoretical aspect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secondly,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death attitude and general self-efficacy on the safety awareness through the survey of over 369 university students on two

universities located in Jeju isl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differences between the death attitude, general self-efficacy and safety awareness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ity students. In particular, older university students had lower the fear of death than youngers. Living alone students had lower the fear of death and higher the general self-efficacy, fire safety awareness compared to living with families or communities. The fire safety awareness of students majored in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higher tha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cond, there we found that the attitude acceptant death, fear of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n the positive influence on the safety awareness. It was confirmed to have explanatory power of the results in 10.5% by regression analysis. That is, the safety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stay higher when the tendency to attitude acceptant death, fear of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goes higher.

Third, from the result of how sub-factors for the attitude death of university students and general self-efficacy influence on the safety awareness, there we found predictors appeared differently upon on the field of safety awareness. Significant predictors for life safety awareness were confirmed as approach acceptance, escape acceptance(negative influence), avoidance of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It was confirmed to have explanatory power of the results in 14.5%. Significant predictors for fire safety awareness were confirmed as approach acceptance, avoidance of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It was confirmed to have explanatory power of the results in 10.7%. Significant predictors for disaster the safety awareness were the avoidance of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And those predictors identified the explanatory power on the disaster safety awareness in 10.9%.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an importance in that it confirms that the attitude death and general self-efficacy influences the safety awareness. In particular, without previous study in korean literature reviews of relations

between the death attitude and safety awareness, that was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towards a psychological analysis for our people having safety frigid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suggested the necessity in specialized program of safety education by field which reflect the death attitude for individuals and improve the general efficacy than uniformity program. Also, taking active part in safety education program, it suggested the need for continuous PR activities for avoiding the possibility of accidents and death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death attitudes, general self-efficacy, risk arrogance, safety awareness

< 부록 1> 죽음 태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죽음을 영원한 축복의 장소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죽음은 신과의 결합이고 영원한 축복이다.	1	2	3	4	5
3	죽음은 새롭고 멋진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1	2	3	4	5
4	나는 사후의 세계를 기대한다.	1	2	3	4	5
5	내가 죽음에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내세를 믿기 때문이다.	1	2	3	4	5
6	죽은 후에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7	나는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8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1	2	3	4	5
9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한다.	1	2	3	4	5
10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혼란스럽다.	1	2	3	4	5
11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1	2	3	4	5
12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것을 걱정한다.	1	2	3	4	5
13	나는 죽음에 대한 강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14	죽음은 이 끔찍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1	2	3	4	5
15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	1	2	3	4	5
16	나는 죽음을 삶의 짐으로 부터의 해방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죽음에 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언제나 애를 쓴다.	1	2	3	4	5

18	나는 어떤 일도 죽음과 관련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19	죽음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1	2	3	4	5
20	나는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21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1	2	3	4	5
22	죽음은 삶의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1	2	3	4	5
23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	1	2	3	4	5

< 부록 2> 일반적 자기효능감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도전적인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1	2	3	4	5	6
2	나는 여러 종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	1	2	3	4	5	6
3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1	2	3	4	5	6
4	나는 어려운 일에 직면해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6
5	나는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정보, 사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6	나는 내가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1	2	3	4	5	6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8	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도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나는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6
10	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한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	2	3	4	5	6

< 부록 3> 안전 의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외출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1	2	3	4	5
2	나는 욕실에서 전기기기(드라이기) 사용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전기기구 사용 후 반드시 전기 플러그를 제거한다.	1	2	3	4	5
4	나는 운동 전후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반드시 한다.	1	2	3	4	5
5	나는 식품 구입 시에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1	2	3	4	5
6	나는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	2	3	4	5
7	나는 길을 건너기전에 이미 운행하고 있는 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1	2	3	4	5
8	나는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이 먼저 내린 후에 탑승한다.	1	2	3	4	5
9	나는 공구(망치, 칼, 톱)를 사용하고 난 뒤 반드시 안전한 곳에 둔다.	1	2	3	4	5
10	나는 가정 내 화학물질(분드, 부탄가스 등)을 항상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1	2	3	4	5
11	나는 기계 장비 사용 시 항상 안전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한다.	1	2	3	4	5
12	나는 집에서 사용할 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에 제품의 안전성을 꼭 점검한다.	1	2	3	4	5
13	우리 집 욕실, 화장실에는 미끄럼매트를 항상 둔다.	1	2	3	4	5
14	나는 월 1회 이상 집(건축물)의 균열 및 외관 등의 안전여부를 점검한다.	1	2	3	4	5
15	승용차량 탑승 시 뒷좌석에 앉을 때도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1	2	3	4	5
16	나는 이웃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그들에게 주의를 준다.	1	2	3	4	5

17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18	나는 조리 후에는 항상 가스 중간밸브를 차단한다.	1	2	3	4	5
19	나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가정 내 소화기를 준비하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탈출경로를 확인 하고 있다.	1	2	3	4	5
21	우리 집 부엌에는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1	2	3	4	5
22	우리 집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다.	1	2	3	4	5
23	나는 다중시설(호텔, 극장) 이용 시 반드시 비상구를 확인한다.	1	2	3	4	5
24	나는 완강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5	나는 소화기 사용법을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6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를 확인 한다.	1	2	3	4	5
27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정 내 소화기의 작동여부를 확인 한다.	1	2	3	4	5
28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스누출경보기의 작동여부를 확인 한다.	1	2	3	4	5
29	나는 6개월에 한 번씩 화재경보기의 작동여부를 확인 한다.	1	2	3	4	5
30	소화기 사용법을 실제 연습한 경험이 있다.	있다		없다		
31	나는 외출 시 대중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항상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외출한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32	나는 마스크와 문자서비스에서 태풍, 홍수, 호우, 폭설 등에 대한 예고가 있으면 외출을 되도록 피한다.	1	2	3		
33	나는 태풍 시 집 안 밖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항시 점검한다.	1	2	3		
34	나는 눈이 내린 후 집 앞의 눈을 치운다.	1	2	3		

35	나는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1	2	3
36	나는 천둥 번개가 칠 경우 전기제품의 전원플러그를 차단한다.	1	2	3
37	나는 태풍, 홍수, 호우, 폭설 전에 주택의 하수구와 집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한다.	1	2	3
38	나는 태풍, 홍수, 호우 시 고압전선의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1	2	3
39	나는 재난 시 안전행동 요령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0	나는 태풍(강풍)시 유리 창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신문지, 비닐, 테이프를 항상 붙인다.	1	2	3
41	나는 지진을 대비해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1	2	3
42	나는 재난을 대비하여 항상 가정 내 비상용품(비상식량, 전등, 구급용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	1	2	3
43	우리 가족은 재난 시 안전 대피 계획을 세우고 있다.	1	2	3
44	나는 응급구조(구급)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45	재난(기후) 관련 행동 요령을 교육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